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5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6. 7.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3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7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14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2021년 4월 가상자산 거래액 약 1,765조원 기록

- 더블록에 따르면 4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총 거래액은 1조 5,800억달러 (약 1,765조원)를 기록, 3월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조 600억달러 (약 1,184조원) (2021. 5. 2.)

* 출처 : [글로벌포스트] 4월 세계 가상자산 거래 1700조...사상 최대(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0646128020>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587만여명, 누적 순입금액 22조 7,000억

-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실명확인(KYC) 절차를 거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587만 3,000명으로 집계됨('21. 5. 3. 기준),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셈, 이들 투자자의 누적 순입금액은 22조 7,000억원('20. 1. 1. ~ '21. 5. 3.)이고 투자자 한 명당 평균 약 387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2021. 5. 28.)

* 출처 : 금융위 "4대 거래소 이용자 587만명, 일평균 거래대금 13조원" (코인데스크코리아 정인선 5/28),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23>

□ 전 세계 2030세대 77%가 '가장자산 관심'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카드회사 마스터카드가 전세계 18개국 1만 5500명 이상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 세대의 77%는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답변, 또 응답자의 40%는 2022년 중으로 결제를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2021. 5. 5.)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전세계 2030세대 77% "가상자산 관심"(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3696?sid=105&lfrom>

□ '향후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에 가상자산 27% 차지

- 매일경제가 1~7일, '2021 서울머니쇼' 홈페이지 방문자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 질문에서 국내 부동산 29.6%,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7%, 해외 주식 18.5%, 국내 주식 16.5%를 기록하여 가상자산 부문이 주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음 (2021. 5. 9.)

* 출처 : 2030의 40%가 "가상자산 투자 선호"...50대는 18% '극과 극'(매일경제 문일호 이새하 5/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45726/>

- ▶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5%였고 이들의 투자 규모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74.5%에 달하였으며,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13명(3.9%)으로 집계
- ▶ 가상자산 보유 이유로는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자산 중 일부로 투자한다'는 대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가치가 수시로 변동해 통화로서 활용 가능성이 없어서'(39.3%)와 '향후 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아서'(37.6%)를 꼽음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국 외

○ 중국

- 중국 디지털 위안화 도입 추진 과정 (2021. 5. 27.)

2014년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전담팀 구성
2019년	중국 정부 디지털화폐 연구 · 개발 가속화 발표
2020년 4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사업 확대 추진 발표
2020년 8월	상무부 디지털화폐 시범지역 발표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시 첫 시범사업
2020년 12월	장쑤성 쑤저우시, 베이징 등으로 시범사업 확대
2021년 5월	상하이 · 쑤저우시 도시 간 연계 실험, 후난성 창사시 역대 최대규모 시범사업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식 도입 잠정 목표

* 출처 : 비트코인 금지령 내린 중국,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준비 '착착' (경향신문 이종섭 5/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3076743>

-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디지털 위안 사용 실험에 참여한 이들을 인용해 디지털 위안이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혜택이 부족하고, 중국 공산당의 감시망에 걸려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전함 (2021. 5. 10.)

* 출처 :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실험, 초반부터 뜨뜻미지근...왜?(경향비즈 박효재 5/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01528001&code=920301

- ▶ 실험 참가자들은 디지털 위안 결제가 편리하지만 앤트 그룹의 알리페이 나 텐센트지주의 위챗페이 등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부족하다고 평가

- 중국금융연합통신은 중국 대형 결제 앱 알리페이가 디지털 인민비(위안화)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알리페이의 결제 솔루션에 일부 중국 금융기관이 동참했다고 보도 (2021. 5. 10.)

* 출처 : 알리페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 솔루션 출시(블록미디어 강주현 5/10),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7617>

- ▶ 해당 솔루션은 알리페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 조건을 충족한 사용자들은 인터넷 상업은행과 연동된 지갑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지갑은 익명으로도 생성 가능
- ▶ 이 지갑으로 자금을 송금하면 은행 저축카드로 이체(ICBC, 농업은행, 인민은행, 중국건설은행, 통신은행, 우편저축은행, 인터넷 상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지원)

○ 미국

-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준비 제도(Fed)가 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발표, 미 연준은 당초 디지털 달러 도입에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수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힘 (2021. 05. 21.)

* 출처 : Fed, 디지털 달러 속도내나... "여름 중 관련 연구 공개" (아시아경제 백종민 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906107>

- ▶ 파월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디지털 달러 개발과 시행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며 Fed가 혁신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서 미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여름 내로 발표할 것이며, 미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주장

○ 유럽투자은행(EIB)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EIB가 발행한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기반 CBDC를 통해 결제됐으며,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2년 만기 채권이 발행돼 결제됐고 채권 매각은 골드만삭스, 산탄데르, 소시에테제네랄이 주도했다고 설명, 또한 향후 몇 개월 간 시장과 협력을 이어나가며 CBDC 관련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2021. 4. 27.)

* 출처 : [글로벌포스트] 4월 세계 가상자산 거래 1700조...사상 최대(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0646128020>

○ 이스라엘

-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은행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세켈(이스라엘의 통화 단위, CBDC)이 경제에 미치는 이점을 탐구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중앙은행은 아직 디지털 통화 발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비용 및 잠재적 위험보다 혜택이 더 클 경우 이를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발언 (2021. 5. 11.)

* 출처 : 이스라엘, '디지털 세켈' 가능성 상승... CBDC 발행 연구 가속화(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5/12),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8>

○ 디엠

-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크리스찬 카탈리니 디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엠이 각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CBDC)를 정착할 때까지 중간다리로서 결제 수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2021. 5. 3.)

* 출처 : “디엠은 CBDC가 정착할 때까지 중간다리 역할할 것”(블록미디어 강주현 5/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6943>

- ▶ 더블록은 디엠의 목표는 CBDC 시스템 안에서 디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구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으며, 디엠이 암호화폐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결제 구조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고 평가

□ 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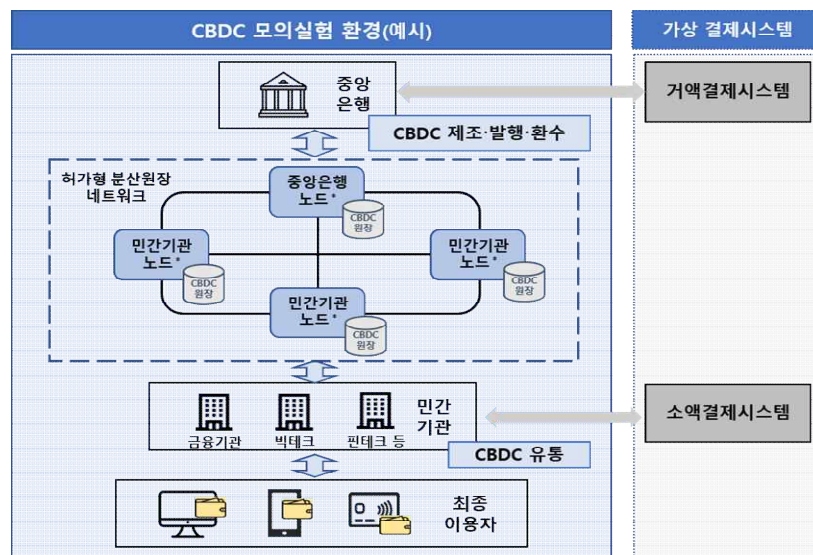
-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5월 4일,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연구인력 11명을 채용키로 함(박사급 연구인력 7명과 전자지급결제시스템 IT 전문가 3명), 한은 관계자는 경력 채용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해 보강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필요 인력이 늘면서 채용 규모도 증가했다며, 코로나 이후 CBDC 등 업무가 늘고 IT 관련 업무 비중이 높아지는 금융권 공통적인 채용 분위기가 한은에도 반영됐다고 밝힘 (2021. 5. 11.)

* 출처 :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 나선 한은... '지급결제+CBDC' 대응(파이낸셜뉴스 연지안 5/11), <https://www.fnnews.com/news/202105111107434461>

-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를 공모했다고 밝힘, 이번 모의실험은 가상공간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 등을 활용해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한 뒤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함을 목적으로 함 (2021. 5. 25.)

* 출처 : 韓銀, CBDC실험 공식착수... '화폐 전쟁' 시작됐다 (문화일보 임대환 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472153>

- ▶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여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 ▶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1단계),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 검토(2단계)로 추진
- ▶ CBDC 실험환경 설계방안(예시)*



* 출처 :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보도 자료 (2021. 05. 24.)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중국

- 헤럴드경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자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투자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의 투자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장외 거래(OTC) 플랫폼과 개인 간 직접 거래(P2P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함 (2021. 5. 31.)

* 출처 : 中 고강도 규제에도 가상자산 투자열풍 여전 [인더머니] (헤럴드경제 홍승희 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841795>

- ▶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비트코인 매수의 주요 결제 수단인 테더의 위안화 가격도 반등했으며, 5월 초 정부의 규제 경고 이후 4.4% 하락했으나 이후 절반 이상의 손실을 면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

○ 미국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의원들에게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2021. 5. 6.)

* 출처 : "가상화폐거래소 규제법 필요" 美 증권거래위, 의회에 요청(아시아경제 백종민 박병희 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98740?sid=101&lfrom>

- ▶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기나 조작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회만이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역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으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

- 유튜브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은 11일 주 내 상거래를 관할하는 통일상법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 시킴 (2021. 5. 11.)
 - * 출처 : 미 텍사스주 하원 가상화폐 법안 통과 ... 암호화폐 규제 법적 틀 마련 전망(블록미디어 박재형 5/12),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7747>
- ▶ 법안에서는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체, 거래의 단위 및/또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며 종종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화된 가치를 의미한다고 규정, 또한 법안은 가상화폐의 구매자가 그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가능하게 함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을 현지 시중은행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 해석을 발표하는 등 금융 산업의 가상자산 접목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2021. 5. 31.)
 - * 출처 : 각국 정부, 속속 가상자산 제도 정비..시장 관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정영일 김소라 5/31), <https://www.fnnews.com/news/202105311212321694>
- ▶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마이클 쉬 청장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조 5,000억 달러(약 1668조 6,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함
- ▶ 미국은 각 주별로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기업 등록 및 인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 ▶ 뉴욕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비트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규정해 엄격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 중인 반면 와이오밍주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은행을 인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1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국세청(RS)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규제안을 발표함 (2021. 05. 21.)

* 출처 : 中 이어 美 비트코인 칼 뺏다... "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 (이데일리 김정남 5/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9051216&mediaCodeNo=257&OurlLnkChk=Y>

o 베네수엘라

-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체 암호화폐 페트로를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산정한다고 발표 (2021. 5. 1.)

* 출처 : 베네수엘라, 국영 암호화폐로 사회보장급여 산정...효과는 '글썄'(토큰포스트 이진우 5/3), <https://www.tokenpost.kr/article-59703>

** 페트로(Petro)는 2018년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가치가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에 고정), 2018년 석유 가치 하락과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음(2018년 베네수엘라 국내 물가 상승률은 92만9,790%에 달함)

- ▶ 발행(2018년) 이후 베네수엘라는 국외 항공편의 연료는 페트로만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국영기업의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하였음, 또한 세금납부와 휘발유 구매에도 페트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보너스를 페트로로 지급하기도 함

o 인도네시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닐말드린 누르 대변인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이익이나 자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힘, 다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2021. 5. 11.)

* 출처 :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 검토(서울경제 곽윤아 5/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JHYF0U>

- ▶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

○ 이란

- 데일리굿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5월 26일 각료 회의에 참석해 이란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연이은 정전 사태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의 전력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9월 22일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2021. 5. 28.)

* 출처 : 이란, 연이은 정전에 4개월간 암호화폐 채굴 '금지' (데일리굿뉴스 조유현 5/28),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3622

- ▶ 당국에 허가받은 이란 내 암호화폐 채굴 시설은 50여 곳으로 에너지 부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시설의 전력 소비만으로도 일일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했다고 분석, 로하니 대통령은 불법 채굴장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이 허가 시설보다 6~7배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

□ 국 내

○ 한국

- 한국법학회가 발행한 법학연구 중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을 보면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등은 가상통화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 기재된 금융투자상품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2021. 5. 1.)

* 출처 : “가상통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부합”...법학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경향신문 윤지원 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22135015&code=940301

- ▶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성,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성, 권리 취득 과정의 위험요소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통화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 김범준 교수는 코인 구매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또 다른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므로 금융상품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블록체인 내에서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투자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발언
- ▶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에 둔 영업행위 준수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
-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사업자를 4월 선정 (2021. 5. 6.)
 - * 출처 : 예탁결제원, 증권형 토큰(STO) 실험 나선다(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5/6),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43>
 - ** STO는 유가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조건을 갖춰야 함
- ▶ 사업 목표는 '분산원장 기반 STO 증권 인프라망'과 'STO 발행·결제 통합된 인프라 플랫폼'의 개념 검증, 예탁결제원은 상장 증권뿐 아니라 소액공모, 장외파생상품 등 다른 비상장 증권으로 확장 가능한 표준 분산원장을 설계할 계획
- ▶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STO를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것이며, 당장 상용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함
- 한국은행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의원 요청자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 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국은행법 제87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有) (2021. 5. 12.)
 - * 출처 : 한국은행 "가상자산 은행계좌 모니터링 검토"(블록미디어 강주현 5/12),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7801>

- ▶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고, 다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EU 등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여 말함
- 5월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함 (2021. 5. 28.)

* 출처 : 정부, 가상화폐 대응 뒤늦게 속도...TF 본격 가동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5/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910745>

▶ <부처별 추진 업무>

부처	소관분야
금융위원회	▶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기획재정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검찰·경찰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거래위원회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 등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 출처 : 국무조정실 발표 보도자료 -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2021. 05. 28.)

- ▶ 국조실은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부처가 각 소관 분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발표
- ▶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기로 함,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

- ▶ 기재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을 주관, 검·경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는 방침
- ▶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추진, 관세청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갤럭시디지털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은 비트고** 주주들에게 갤럭시디지털 신규 발행 보통주 3,380만주, 현금 2억 6,500만달러 등 총 12억 달러 (약 1조 3,512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 갤럭시디지털은 2021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 (2021. 5. 5.)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전세계 2030세대 77% "가상자산 관심"(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3696?sid=105&lfrom>

** 비트고 : 2013년 설립 이후 가상자산 커스터디, 월렛 인프라 프로덕트, 프라임 대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관리, 세금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 현재 150개 이상의 거래소와 4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400억 달러(약 45조 원)이상의 자산을 수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비자카드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자(VISA)는 멕시코, 필리핀, 케냐, 인도 등 신흥 시장에 6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탈라(Tala)와 손잡고, 신흥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시 (2021. 5. 5.)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전세계 2030세대 77% "가상자산 관심"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3696?sid=105&lfrom>

○페이팔

- CNBC에 따르면 페이팔의 덴 술만 CEO는 다가오는 3분기 청구서 결제 서비스에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2021. 5. 10.)

* 출처 : 페이팔 CEO "3분기 청구서 결제에 암호화폐 도입할 예정"(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5/1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4015>

- ▶ 술만 CEO는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서비스를 바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했고,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면 페이팔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 피델리티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가 기관투자자용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Sherlock'을 출시, 피델리티는 자회사를 통하여 지난 3월 비트코인 거래소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2021. 5. 1.)

* 출처 : [글로벌포스트] 4월 세계 가상자산 거래 1700조...사상 최대(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0646128020>

○ 안데르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대형 투자사 안데르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가 10억달러 규모 가상자산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분야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규모 자금풀(Pool)이 될 것이라는 예상 (2021. 5. 1.)

* 출처 : [글로벌포스트] 4월 세계 가상자산 거래 1700조...사상 최대(파이낸셜뉴스 이구순 5/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0646128020>

○ 골드만삭스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선물 및 역외시장 차액결제 선물환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임**, 골드만삭스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비트코인 연계 파생상품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공지 (2021. 5. 7.)

* 출처 : 월가 터줏대감 골드만삭스, 첫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서울경제 김기혁 5/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AM37S8H>

** 이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도록 한 것

○ UBS

- 스위스의 주요 은행 UBS가 고액 자산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자산 보유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노출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한해 외부 기관의 투자 상품을 제공할 계획 (2021. 5. 10.)

* 출처 : 스위스 UBS 고액 자산 고객 암호화폐 투자 제공(블록미디어 박재형 5/10),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7633>

○ 디벨롭먼츠

-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부동산 개발업체 355 디벨롭먼츠는 암호화폐 결제 및 유동성 제공업체 FNTX와 제휴해 암호화폐를 부동산 구입 결제 수단으로 도입,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짐 (2021. 5. 12.)

* 출처 : 포르투갈서 도지코인으로 주택 판매 ... 암호화폐 투자자 부동산으로?(블록미디어 박재형 5/1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7848>

○ 일론 머스크

- 테슬라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 2022년에는 도지코인의 이름을 딴 인공위성 '도지-1'이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달로 갈 예정 (2021. 5. 10.)

* 출처 : 머스크 "달 탐사위성 발사, 도지코인으로 결제"(동아일보 김민 5/11),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10510/106853728/1>

- 일론 머스크는 본인 계정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힘 (2021. 5. 12.)

* 출처 :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 중단...화석연료 우려"(뉴시스 남빛나라 5/1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3_0001439399

- ▶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로 인해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석탄은 어떠한 연료보다도 최악이라고 말함

- ▶ 암호화폐는 많은 의미에서 좋은 생각이고 우리는 암호화폐가 전도유망하다고 믿는다면서도 환경을 크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채굴로 전환되는 대로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밝힘
- ▶ 더불어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만 쓰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덧붙임
- 5월 24일(현지 시각) 일론 머스크는 북미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과 대화를 했고, 협의회의 계획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다시 비트코인 띄우기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트위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9% 상승해 4만 달러에 근접했다고 보도 (2021. 5. 26.)

* 출처 : 비트코인 채굴 협의체에 참여한 머스크, 또 트윗을... (조선일보 유소연 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16176>

□ 국 내

○ 암호화폐 보유 국내 기업 현황

- 조선비즈는 3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은 모두 21곳이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이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8곳, 정보기술(IT) 업종과 광고 업종은 각각 4곳,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컨설팅 기업 2곳, 게임·금융서비스·식음료 기업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2021. 5. 3.)

* 출처 : “비트코인만 300억 보유”... 한국판 테슬라는 어디(조선비즈 김소희 권유정 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11107>

○ 탐앤탐스

-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탐앤탐스가 가상자산 탐탐코인(TOMS)을 자사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이탐(MyTOM)의 결제시스템에 도입했다고 밝힘 (2021. 5. 31.)

* 출처 : 코인으로 커피산다...탐앤탐스, 가상자산 결제시스템 구축(파이낸셜뉴스 정영일 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48351>

- ▶ 탐앤탐스 관계자는 탐 지갑에 내장된 블록체인 기술이 고객 개인 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방지에 유리하며 결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가맹점 및 본사가 투명하고 빠르게 매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함